

105개국 양궁 대표단 광주서 규정 논의·회장단 선출

세계양궁연맹총회 개막...김대중센터서 오늘까지 진행
문화·스포츠 결합 국제 외교 무대...선수권대회 5~12일

세계 105개국 양궁 대표단이 광주에 집결한 가운데 문화와 스포츠가 한데 어우러진 국제 외교무대가 열렸다.
광주시는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양궁연맹 총회' 본회의가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세계양궁연맹 우르 에르데나르 회장, 요르그 브로캄프 수석부회장, 톰 딜런 사무총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국제 양궁선수 및 팀원 자격 규정, 임원단 선출, 심판 조직 절차, 윤리 및 행동 강령 법률안 발의 등 양궁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총회는 지난 1일 이사회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3일까지 이어지며 마지막 날에는 차기 세계양궁연맹 회장단

이 선출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세계양궁연맹총회를 통해 스포츠 외교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콘텐츠 홍보에 주력한다.
개회식에서는 광주시립창극단이 전통 공연을 선보였으며, 3일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막 오프닝 쇼 '환의 나라'에서는 고싸움 놀이, 농악패 행진 등 광주의 문화적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세계양궁연맹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오는 5일부터 열리는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광주는 고대 마한의 활 문화부터 시작해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한 양궁의 도시이자 하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양궁연맹 총회 본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계유니버시아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도시"라며 "전 세계에 평화의 울림을 전하고, 광주가

세계 평화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총회와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대회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5일부터 12일에는 광주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22일부터 28일까지는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가 광

주국제양궁장(예산전)과 5·18민주광장(결승전)에서 펼쳐진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

최치현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사진)이 이재명 정부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고공단 2급)으로 임명됐다.
최 정책보좌관은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부 장관인 권오을 장관을 보좌하며,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라는 이재명 정부의 보훈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번 임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강화, 보상 현실화, 그리고 이념과 지역을 초월한 국민 통합이라는 핵심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인사로 평가된다.
그는 국가보훈처 장관정책보좌관 재직 당시 보훈 의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보훈의료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보훈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행 경험을 쌓았다.
또 대통령직속 군사상고장전상규명위원회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실무 총괄했고,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 해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부기획, 사회조정, 사회통합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주요 국정과제 조율에 참여했고, 광산구 열린민원실장을 역임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장승기 기자 sky@



민주당 전남도당
박성은 신임 사무처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주철현)은 지난 1일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신임 사무처장에 박성은 중앙당 총무조정국장(국회직 1급 상당·사진)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성은 신임 사무처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중앙당 조직국장과 총무조정국장, 서울시장·경기도당 사무처장, 기획국장 등을 역임하며 당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친화력과 업무 추진력을 겸비한 실무형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박 사무처장은 임명 소감에서 "말사봉공의 자세로 민주당 전남도당이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책임감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전남도민과 당원의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여야, 최고진 후보 '정치편향성 의혹' 격돌

여 "교육경력 적임자"...야 "전교조 교육부" 우려
천안함 폭침 부정 공유 비판에 "음모론 동의 않아"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최고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최 후보자에 대한 정치 편향성 의혹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교육 경력을 부각하면서 '적임자론'을 띄운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들어 '이념적 편향성 논란' 등을 제기하며 불이불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을 언급하며 최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격에 방어막을 쳤다.
박성준 의원은 "후보자는 교육계에 계신 지 한 40년 되겠다"며 "사회운동도 하였고 교육 현장에 있었으며 책임 있는 세종시교육감 3선을 연임하는 등 업적과 일들을 많이 해와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집행했던 분으로 (장관직에) 가장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정을호 의원은 "이배용 위원장에 대해 의사전행발언을 안 할 수 없다"며 "한 대학의 총장까지 지내고 백년지대

계를 논하던 인사가 결국 매관매직 의혹과 직무 유기로 지금 국민에게 망신을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위원장을 국감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을 언급하며 편향된 시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은 "많은 국민이 후보에 대한 걱정 중 하나가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위한, 전교조에 의한, 전교조를 향한 교육부가 될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 시 전교조 출신 인사를 승진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의 세종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최 후보자가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 음모론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최 후보자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며 공유했다"며 해

명을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사과드리다"고 밝혔다.
다만 음모론을 공유한 데 대해서는 "꼭 (정부 공식 입장을) 신뢰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문제 제기하는 의견을 혹시 함께 검토하거나 토론해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그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지난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된 사례를 들며 부작적 논란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이었고,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후보자는 "음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드리다. 2003년 교사는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됐고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22년 전 일인데 그 이후에 단 한 차례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c235@gwangnam.co.kr

양부남 의원, 현장 목소리 담은 의정보고회
광주 서구를 생활밀착형 과제...국가도시공원 지정 촉구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이 개최한 의정보고회가 단순한 현안 보고를 넘어 주민 생활과 직결된 목소리를 직접 담아내는 소통의 장이 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상무2동을 시작으로 열린 의정보고회는 상무2동, 금호동, 화정동, 서창동 등 지난달 31일까지 6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의정보고회에서는 생활 편의부터 환경 개선, 청년 공간, 안전 문제까지 지역 전반의 현안이 쏟아졌다.
5·18 역사공원 내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주차장 확충과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급 과제로 꼽혔다.
중앙근린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20만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면적 확대와 치질 없는 지정 추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창천 수질 개선, 화정근린공원 내 5·18 사적지 안내판 방치 문제 해결 등 환경 정비 과제도 잇따랐다.
청년층을 위한 공간 확대 요구도 이어졌으며, 빈 상가와 유휴공간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활용,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의 제



안도 나왔다.
교통 인프라와 안전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우성1차 아파트 앞 육교 철거와 화장4동 먹자골목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청소년문화의집 주변 옹벽으로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지하철 공사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공익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충할 광주시 차원의 보상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 AI 선도체험 프로그램 도입, 서창교 일대 파크골프장 조성 등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양부남 의원은 "생활 속 불편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국회와 지자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자주 만나 소통하며 더 나은 서구, 더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교육
스마트폰·키오스크 활용법 생활밀착형 지원

전남도가 빠른 디지털 전환 속에 고령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은(ON) 동네 교육'을 본격화한다.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디지털 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배움터 전남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특목, 어르신 디지털 동행, 키오스크 체험존 등 세 과정으로 구성된다.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특목'은 3명 이상이 신청하면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노인시설로 강사가 직접 방문해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법을 실습 위주로 알려준다. '어르신 디지털 동행'은 마을 이·통장을 디지털 조력자로 양성하는 과정으로, 정기 회의를 활용해 모바일 행정서비스와 생활 밀착형 기능을 배우고 이를 주민들과 공유한다. '키오스크 체험존'은 실제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무인기기를 직접 다뤄보도록 시·군별 기기를 입



차에 운영한다.
전남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디지털 생활 자립 능력을 높이고, 마을 단위에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디지털배움터 누리집(www.디지털배움터.kr)이나 콜센터(1800-0096)를 통해 가능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의회 의대 특위 "통합대학 교명 공모 즉각 추진"

목포대·순천대 통합 이행 촉구
도민 염원 상징 교명 확정 강조

전남도의회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의대 특위)가 전남 의과대학 설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통합대학 교명 공모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 특위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국정과제를 확정된 것은 전남 의대 설립 필요성을 국가가 공식 인정한 역사적 성과이자 180만 도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쾌거"라고 평가했다.
특위는 이어 "지난해 11월 양 대학의 통합 합의는 의대 설립을 향한 중대한 전진이었지만 선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교육부가 요구하는 통합대학 명칭의 설립 신청을 위해서는 교명 확정 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가 전남 의과대학 설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통합대학 교명 공모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교명 공모의 의미에 대해 "단순한 명칭을 넘어 전남 국립의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이라며 "전남의 미래 의료진을 키워낼 요람의 이름이자, 의료 불평등 해소의 의지를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교명 확정에는 도민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의대 설립 속도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목포대와 순천대는 통합에 합

의한 주체로서 지체 없이 교명 공모 절차에 착수해야 하며, 전남도 역시 도민 참여가 가능한 공모 절차를 마련해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 특위는 끝으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지역 현안을 넘어 국민 모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전남도와 양 대학은 하나 된 마음으로 즉각 교명 공모를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